



정신건강의학과 Neuropsychiatry

조현병 치료에서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장기지속형 주사제란?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말 그대로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주사 제제로 만들어진 항정신병 약물을 의미합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약물 성분이 근육 사이에 머물게 되고, 천천히 분해되어 혈액 내로 방출되어 뇌까지 도달하면서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매일 경구로 복용해야 했던 항정신병 약물과 달리, 같은 성분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한 번 맞고 나면 약의 효과가 1~3개월 정도 꾸준히 나타납니다.

환자에 따라 한 가지 종류의 약제가 아닌 다양한 약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정신병 약물을 주사제로 대체하고 나머지 먹는 약은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면담을 통해 환자별로 적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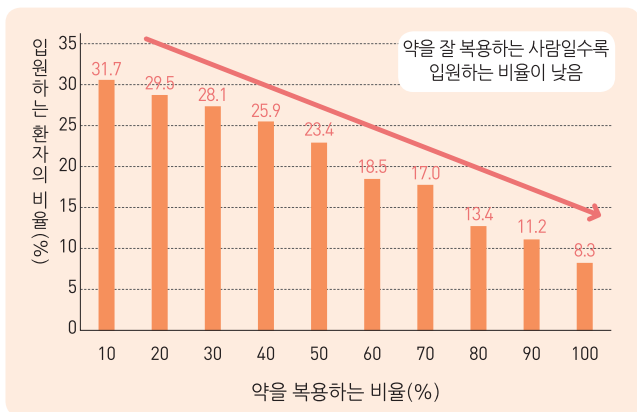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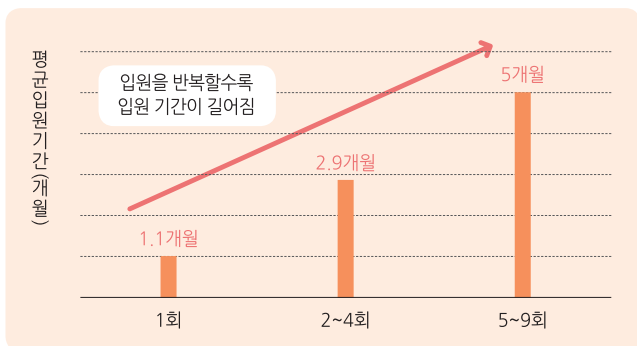
조현병 치료에서 증상의 안정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한 약물치료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약 복용을 놓치거나 처방 받은 것보다 더 적은 용량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자의 편리한 약물 투여를 돕고자, 매일 먹어야 하는 약 대신 한 달 마다(또는 세 달) 맞는 주사약으로 증상을 조절하고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장기지속형 주사제입니다.



조사대상 : 조현병 혹은 조현정동장애 환자 48,148명

자료 출처 : Valenstein M, 등 Medical Care 2002



자료 출처 : 2005년 일본 성마리안나 의과대학 환자 결과

약물 비순응

- 조현병에서 퇴원 후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비율은 1년 후 50% 2년 후에는 25%로 감소합니다.
- 이렇게 약물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이유
 - 복용을 잊어버리는 경우
 - 용량이나 용법을 자의로 조절하는 경우
 - 병식 부족으로 복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용을 꺼리는 경우 등

증상 재발

- 약 복용을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 재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 약 중단 이후 2년 이내 다시 입원할 확률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보다 3.7배 더 높습니다.
- 약 중단 이후 75%에서 1년 내 뚜렷한 증상 악화를 보입니다.
- 약을 완전히 끊지 않고 다시 복용을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재입원율이 높아집니다.

질병의 악화

- 재발이 반복되면 질병의 경과와 예후는 점점 악화됩니다.
- 재발을 거듭할수록 회복에 점점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 재발할수록 약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서, 기존 복용하던 약물의 용량을 높이거나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병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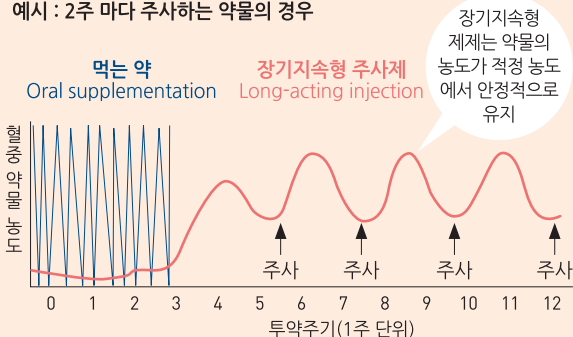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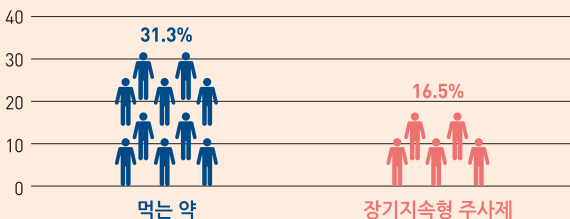
장점

-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먹는 약에 비해 혈중 농도의 변동이 적어, 치료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 먹는 약에 비해 재발 위험과 재입원의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 부작용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시 : 2주 마다 주사하는 약물의 경우



재발율의 차이



단점

- 약물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약물(인베가, 아빌리파이)만이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주사 제제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먹는 약에 비해 체내에서 즉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Q :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사하면 너무 센 약이 아닌가요?

A : **아닙니다.** 약 성분이 근육 내에서 매일 조금씩 혈액으로 방출되어 약효를 나타내기 때문에 먹는 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혈중 농도의 변동이 먹는 약보다 적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부작용 발생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 최근에 개발되었으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인지 아직 불확실한 것 아닌가요?

A : **아닙니다.** 약물이 상용화 되기 전에 여러 임상 연구들을 통해 효과와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으며,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미 국내외 많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 재발이 잦거나 약물 순응도가 떨어지는 환자들만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치료하나요?

A : **아닙니다.** 처음 발병하였거나 발병 후 비교적 초기인 조현병에서도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발 위험을 낮춰줍니다. 최근 발표된 약물치료 지침에 따르면, 병의 경과 중 어떠한 단계에서든지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Q :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조현병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A : **아닙니다.** 조현병 이외에 기분장애와 같은 기타 질환들에서도 약물 순응도는 치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장기지속형 주사제들 중 일부는 양극성 장애의 유지치료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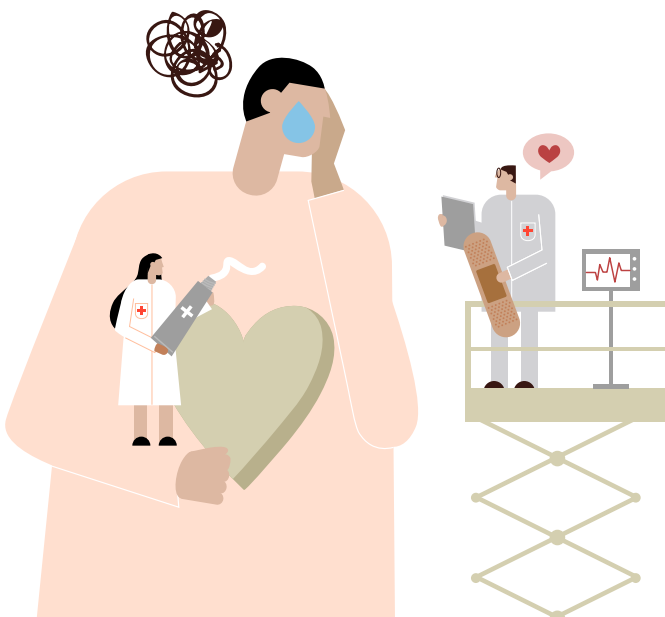


조현병이란?

조현(調絃)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입니다. 조현병이라는 용어는 병으로 인한 정신의 부조화를 치료를 통해서 조화롭게 하면, 현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듯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양성증상(예 : 혼란스러운 생각, 환청, 망상 등)과 음성증상(예 : 감정 표현의 감소, 의욕의 저하, 대인관계 감소 등)으로 나누며, 인지기능의 손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관리 및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발의 방지입니다. 이러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약물 복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물을 처방받은 대로 빠뜨리지 않고 복용해야 하며 최근에는 복용의 편의 등을 위해 한 달 혹은 세 달 간격으로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899-0001

의정부

평일 08:00~17:00

대전/노원/강남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2:30

www.emc.ac.kr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엔 ‘을지’가 있습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강남을지대학교병원